맞닿은 원력, 서로를 품고 피어나길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㉞ '갯마을 차차차'(2021)



'갯마을 차차차'는 홍두식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해결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베푼 진심 어린 보살핌과 윤혜진의 사랑을 통해 그가 비극적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다. 우리 곁에도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한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1972년에 일본에서 방송된 '아스토로 강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우주소년 짱가'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짱가라는 로봇이 주인공과 하나가 돼서 우주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그다지 알져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으로 시작하는 주제가는 지금도 꽤 유명하다. 종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덕분이다.

짱가 주제곡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2004년에는 주제곡 가사를 따서 제목으로 만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 반장'이라는 긴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쫓겨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병원을 개업한 치과 의사와 바닷가 마을의 온갖 일을 챙기는(혹은 참견하는) 홍 반장이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수십 가지 자격증을 소유한 홍 반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어디선가 틀림없이 나타나 무슨 일이든 해결해 주는 짱가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2021년,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탄생했다. 오늘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명문대 치대 출신으로 억대 연봉을 받던 페이 닥터 윤혜진(배우 신민아)은 과잉 진료 문제로 원장과 대립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만다. 홧김에 커뮤니티에 폭로 글까지 올리는 바람에 더 이상 서울에서는 재취업의 싹이 잘리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바닷가 마을 '공진'을 찾는다. 하지만 추억은 잠시, 차는 고장 나고 구두와 지갑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혜진. 이때 우연히 만난 홍 반장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참에 공진에 자리 잡을 결심을 한다.

강원도 청호시 공진마을 반장 홍두식(배우 김선호)은 이 마을 최고의 해결사다. 찜질방 매점을 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리스타가 되기도 하며 부동산 중개에 목수 일과 인테리어까지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나선다. 보상은 오직 시간당 최저 시급. 그렇다고 홍 반장이 그저 손재주 조금 있는 아마추어는 아니다. 자격증만 수십 개를 가진 '황금 손' 전문가. 이런 만능 해결사 홍 반장 앞에 어느 날 바다에 구두를 빠트린 혜진이 나타난다. 홍 반장은 지갑을 잃어버려 난처한 혜진에게 일당 3만원을 벌게 해주고, 결국 치과를 개원하는 혜진에게 병원 건물을 중개해 줄 뿐만 아니라 내친김에 인테리어까지 도맡는다.

그리하여 혜진은 홍 반장 덕분에 일사천리로 자신의 병원을 여는 데 성공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이자 도시주의자인 혜진에게 시골 마을 공진에서의 삶은 녹녹지 않다. 이 마을에서는 사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남의 인생에 무슨 관심은 그렇게도 많은지 사사건건 조언과 간섭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니 혜진은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빚고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홍 반장의 중재로 서서히 마을에 적응해 간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원작 영화의 줄거리대로 까칠한 치과 의사 혜진과 해결사 홍 반장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갯마을 차차차'라는 제목답게 어촌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진마을 3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라는 통장 여화정(배우 이봉련)과 동장 장영국(배우 인교진)은 만나면 으르렁대면서도 도대체 이혼한 부부가 맞나 싶은 케미로 '사랑과 전쟁'을 보여주며 짠한 웃음을 주고, 혜진의 친구이자 치위생사인 표미선(배우 공민정)과 공진파출소 순경 최은철(배우 강형석)은 풋풋한 사랑으로 따스한 미소를 짓게 한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은철의 비밀은 공진마을 3대 미스터리 중 또 하나인 로또 당첨

2004년 개봉 영화 바탕 리메이크 작품
마을 해결사 홍 반장–치과 의사 혜진의
러브 스토리 등 어촌 다양한 이야기 담아
죄책감 속 홍 반장 구한 건 마을 사람들
우리 곁에도 서로 지켜줄 존재 많아지길



'갯마을 차차차'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자라는 것. 심지어 당첨금 14억원에서 세금 떼고 7억원을 기부하고 3억원 정도 남은 돈으로 미선과 살 집을 짓겠다는 비범한 청년이다.

이들은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인데, 특히 영화와 구별되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만의 의미를 드러내는 인물이 할머니 3인방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홍 반장과 인연이 깊은 김감리(배우 김영옥) 할머니다. 감리 할머니는 공진의 원로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할머니들의 대장이다. 광복군 출신인 아버지가 태극기의 '건곤감리'에서 따온 '감리'라는 이름도 범상치 않다. 감리 할머니는 홍 반장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홍 반장을 친손자처럼 밥해 먹이며 키웠다. 홍 반장을 친손자 이상으로 아끼고 위한다.

한편 영화에서 홍 반장에게는 3년의 행적이 비밀이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이 설정을 활용한다. 다만 3년을 5년으로 늘이고, 이것을 공진마을 제1의 미스터리로 삼아 영화에서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던 홍 반장의 과거 행적을 설명한다. 그 시작은 혜진의 대학 선배이자 유명한 예능 PD인 지성현(배우 이상이)이 공진마을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답사차 공진에 등장하면서부터다. 혜진을 둘러싸고 약간의 질투 어린 삼각관계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결국 성현과 홍 반장은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데,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다. 홍 반장의 본명인 '홍두식'이란 이름을 들은 성현의 스태프인 도하(배우 이석형)가 갑자기 분노하며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드러난 과거의 아픈 사연.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같이했던 선배를 따라 펀드매니저가 된 두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아저씨의 펀드 추천 부탁에 못 이겨, 다른 펀드매니저의 명함을 건네주며 "연결은 해주지만, 절대 대출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충고를 건넸다. 그러던 중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고, 출근하는 두식에게 달려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아들의 학자금과 취업 자금 등으로 돈이 급해 두식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출까지 받아 주가 연계 증권 상품에 가입했던 것. 그 후, 사태 해결에 정신이 없던 두식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경비 아저씨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만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두식은 선배와 함께 아저씨를 찾아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한다. 불행에 불행이 겹친 사고로 선배마저 세상을 떠나는데, 알고 보니 경비 아저씨가 도하의 아버지고, 두식의 선배가 바로 성현의 사촌 매형이었다.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느낀 두식이 병원에서 나와 한강에 뛰어들려는 순간, '보고 싶다'는 감리 할머니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감리 할머니 덕분에 마음을 다잡은 두식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어린 공진으로 귀향한다. 이 같은 과거 이야기를 혜진에게 들려주며, 두식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불도 안 들어오는 빈집에 나를 가뒀는데 사람들이 자꾸 문을 두드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나한테 뭘 먹여. 날 들여다봐. 꼭 혼자 있는 길고양이 돌보듯이 무심하고 따뜻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막 나한테 뭘 부탁하더라.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 '세탁기가 고장 났다', '잠깐만 와서 카운터 좀 봐줘라.'"

이어지는 혜진의 말. "그게 지금의 홍 반장을 만들었구나. 공진이 홍 반장을 살렸네."

드라마가 시작할 때만 해도, 홍 반장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는 듯했지만, 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홍두식을 보살펴 지금의 홍 반장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두식은 이웃들과 혜진의 사랑 덕분에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온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으로 시작하는 짱가 주제곡이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 가사에서 드러난다.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의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주 악당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짱가의 원력이 불러오는 신통력인 셈이다. 마치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괴력을 발휘하는 부모들처럼,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자비의 두 팔로 건져주시는 불보살님들처럼.

공진마을 사람들이 무심한 듯 살뜰히 홍 반장을 지켜주었듯이, 홍 반장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듯이, 우리 곁에도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짱가'와 같은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한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사찰운영 및 신세대 포교를 위한 소통이 필요할 때

신세대와 소통하는 타로강의 신수와 인생 상담



동양 음양오행 원리 적용 타로카드

수강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수강시간 : 기초 2시간 2회
타로등록 : ISBN 979-11-86237-98-4
수강비용 : 자료 책 자격증 최소비용
수강신청 : 승려증(복사)1. 사진1
지급품목 : 책1. 카드5. 자격증. 미국승려증(정식)
신청방법 : 010.7187.1947
강의강사 : 유지안 스님(미국시민권 법납54)



서울 강남구 광평로295 사이룩스 동관306호

010.7187.1947

지안스님 회향을 준비하며 스님들께 재능기부